

제426회 국회 (임시회)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10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안 진행 보고

상정된 안건

1. 업무현안 진행 보고 ..... 1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신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APEC특위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7일 APEC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받은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관련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해 외교부 및 APEC준비기획단의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관련 기관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안 진행 보고

(14시01분)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안 진행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2025APEC고위관리회의 윤성미 의장 및 APEC준비기획단 김지준 기획실장 각각 나오셔서 지난 업무보고에서 진전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 정일영 간사님, 이만희 감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윤성미 APEC고위관리회의 의장입니다.

지난 4월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약 2개월 동안 2025APEC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와 김지준 기획실장이 각각 소관 업무별로 준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요입니다.

먼저 일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APEC정상회의 주간은 금년도 하반기 일주일간 경주에서 최종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정상회의 순으로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특위 이후 5월 3일에서 16일간 제주에서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총 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해양, 고용노동, 교육 및 통상 장관회의 등 각 분야에서 회원들 간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제 및 중점과제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정상회의 준비 현황입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경주 선언’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동 선언은 올해 주제 및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비전을 담은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성과입니다. 올해 APEC 회원들이 함께 추진해 나갈 핵심 성과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서 경주 선언과 별도로 성과문서 도출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두 가지 핵심 성과의 주요 내용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각 핵심 성과의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상회의 초청입니다. APEC 관행에 따라 우리 정상 명의 초청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 예정입니다. 1차 초청장은 6~7월 중에, 2차 초청장은 9월 중 발송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서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김지준 기획실장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회의장은 아시다시피 경북화백컨벤션센터 내에 정상회의에 필요한 모든 공간인 본회의장, 정상 라운지, 양자회담장, 문안 협상장 등 필수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6월 중순 회의장 전체 배치안을 확정하고 7월 초에 실시설계를 거쳐 9월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정상용 숙소 조성 및 숙소 서비스 제고 현황입니다.

정상용 숙소의 경우 21개 회원 정상들이 이용하는 PRS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해 경상북도 도지사, 경주시장, 전문가 그다음에 현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PRS위원회가 면적,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호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1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숙소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8월 말 완공 목표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호텔은 9월 말까지 자체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완료될 계획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PRS 및 공용시설 개보수 공사를 8월 말까지 완료 목표이며 호텔 식

음료서비스 개선 및 호텔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서울 최고급 호텔들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6월 12일에는 서울 우수 호텔 PRS 견학 및 경주 호텔 실무자 교육이 있을 계획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정상만찬장 조성입니다.

정상만찬장은 아시다시피 국립경주박물관 옥외전시장에 연면적 2000㎡, 지상 1층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올해 1월 제5차 준비위에서 국립경주박물관이 만찬장으로 확정된 이래 지난 3월 설계공모를 마쳤으며 5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미디어센터입니다.

정상회의 취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HICO 야외전시장 부지에 약 6000㎡, 지상 2층 구조로 미디어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작년 11월 설계공모를 거쳐 올해 1월~3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4월 착공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소 배정 현황입니다.

일일 최대 7500명 이상 방문을 예상하고 보문단지 및 경주시 인근에 활용 가능한 숙소 7700여 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등에도 2700여 개를 추가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표단들의 객실은 행사장 특히 회의장 주변에 숙소를 배정하고 경제인의 경우에는 경주시, 보문단지 일부와 인근 도시에 그리고 기자단의 경우에는 경주 시내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대표단의 경우 개별 협의를 거쳐 6월 말 전 회원국들 숙소를 확정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저희가 7월 예정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숙소 예약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소 운영 세부계획을 토대로 서비스 개선 등을 9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송 계획입니다.

10월 25일에서 11월 3일을 수송 기간으로 하여 약 2만 명이 수송 경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국은 김해공항을 주공항으로 운영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KTX 경주역으로 진입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 고위관료를 위한 의전차량을 조달·운영하고 출입국, 행사장, 숙소 및 시내 이동을 위해 27개 노선의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주역, 김해공항 등과 같은 주진입로와 대구, 울산, 포항경주공항과 같은 하부 진입로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항공 대책입니다.

정상 전용기 및 수행원들의 항공기 등이 주공항인 김해공항으로 들어오고 보조공항으로 대구공항에 입항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F급 대형 항공기 운항

을 위해서 수용성 검토와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작년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공포를 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기업인 전용기의 경우 저희가 50~100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김포공항을 주공항으로 배정하고 예비로 대구·포항경주공항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항경주공항에 기업인 전용을 위한 CIQ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주기장 5개가 배정돼 있습니다. 포항경주공항이고 민항기 2대가 주기할 경우 3대 정도의 주기장이 있기 때문에 킥턴을 활용하는 등으로 해서 기업인들 전용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6월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가고 9월에는 각 회원을 대상으로 정상 출도착 일정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정상 전용기 주기장을 배정하고 실제 공항운영·출영송 행사 리허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 대책입니다.

작년 11월 외교부 의료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북도·경주시 주관으로 의료 자문단 등 자문·용역을 통해서 금년 4월에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금년 5월에는 총 24개의 병원을 APEC정상회의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 5월 20일 경북도와 24개 병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상회의장인 HICO 내에 의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응급조치 가능한 이동형 병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상 숙소별로 응급지원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 50대, 응급헬기 5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는 2025년 APEC정상회의 응급의료지원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홍보 계획입니다.

나비와 수막새를 모티브로 한 엠블럼과 키비주얼을 마련하였고 APEC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APEC 2025 KOREA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 전광판 및 협업 매체 영상 광고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PEC 홍보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홍보대사 선정 및 대국민용 홍보 슬로건 마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TV 광고, 주요 인사 인터뷰, 기고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경제인 행사입니다.

APEC 계기에 최고경영자 회의인 CEO 서밋이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의장을 맡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들과 ABAC 위원과의 대화에도 오찬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기업인들의 제안 사항들이 정상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CEO 서밋 준비를 위하여 6월에는 이미 10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사전 초청장이 나가고 있고…… 올해 3월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에는 산업부장관 명의의 초청장, 7월에는 우리 정상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경제인을 위한 추가 숙소 마련을 위하여 대한상회는 크루즈 호텔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크루즈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부처별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만찬 문화공연, 기념촬영에 해당하는 정상 친교 행사, 배우자 행사 등 준비 개요입니다.

만찬 공연의 경우 전통 문화와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만찬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 친교 행사로는 기념촬영을 상정하고 있으며 불국사 등에서 한국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정상 배우자 행사의 경우에도 1일 2회 또는 2일의 별도 문화체험 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이 경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 2일에는 문화행사를 기획·총괄할 예술감독을 위촉하였고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 수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기현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차관님 오셨군요.

APEC이 불과 지금 한 4~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너무나 큰 중요한 행사이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비상계엄, 탄핵, 대선으로 인해서 각 기관들이, 부처가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구나라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저께 점검회의도 하시고 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 초청을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로 중요한 행사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어제오늘 해서 외교부 장관 꼭 참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곧 그만두실 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 차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회의 석상, 이 자리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 국민들께 그동안 외교부장관으로서 또 차관으로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지 보고드리는데 장관이 어쨌든 참석을 안 하게 됐고요. 하여튼 그거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차관이 참석을 해서 차관께서 성실한 답변, 어저께 대통령께도 차관하고 다른 두 분이 실무적인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성실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게 외교부에서조차도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주호 국무총리대행이 APEC 관련해서 5월 22일 목요일 날 회의한 내용, 자료, 구체적인 일체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한 장 아주 형식적으로, 차관님

이…… 나중에 따질게요, 하여튼.

이렇게 무성의하게, APEC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외교부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APEC 관련해서 APEC이 경주로 정해지고 나서 사업 계획,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획이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늦어지고 두 달 정도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한 모든 각 부처, 기관 다 그 당초 계획하고 변경돼서 딜레이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그 이유, 향후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외교부의 차관님하고 실무 의장인가 단장님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G7 국가에 대통령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일본·캐나다가 APEC에 참석할 국가들이고 초청국에 G7에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멕시코가 들어가 있는데 합해서 여섯 나라,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G7 회의에서 만나실 정상이 여섯 나라인데 그 여섯 나라들하고, 6개 국가하고 지금까지 APEC 참석과 관련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협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 내용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 APEC……

○김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현 좀 잠시만, 이것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 및 지자체 준비지원단 이외에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APEC 관련 부처 담당 실국장들과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및 경주시 부시장께서 참석해 계시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이라 하셨나요? 말씀하시지요,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오늘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준비 현황에 대한 질의와 별도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에 계엄 해제와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위상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APEC정상회의는 중요한 외교행사인데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회담 전후에 입법부의 협력 역시 필수적인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APEC정상회의를 사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에서 역대 최초로 입법부 중심의 논의 플랫폼인 Parliamentary Assembly of APEC 개최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는 APEC정상회담 지원에 관한 좋은 콘텐츠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한민국 의회의 역할을 보여 줌으로써 참가국들에게도 고무적인 인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rliamentary Assembly of APEC에서는 정상회의 중점 논의 사안인 경제협력

논의 이외에도 여성, 환경, 기후, 공존 등 세계적인 관심 의제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논의의 장을 엮고 동시에 주제를 강조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2025년 APEC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소중한 국제무대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외교를 넘어 의회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 확대와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검토와 추진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회의 효율이 더, 효율적인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것이니까 질의와 답변과 관련된 사항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간 협의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세계 반도체의 수도 평택, 동북아의 친환경 복합 경제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차관님, 이 위원회 풀네임이 뭐라 그랬지요? 지난번에도 여쭙봤는데.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죄송합니다.

○이병진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벌써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이병진 위원 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11월 말에 특별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 지원입니까, 백안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해 가지고 평상시에, 아무리 6개월 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권이라도 찾아오고 했어야 되는데 한 분도 찾아와서 지원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자, 좋아요. 과거지사인데 남은 시간이 한 140일 남았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병진 위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 방향성과 APEC 의제 간의 정합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조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동의하신 걸로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경주 컨센서스, 경주 선언.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이제 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상회담의 성사, 한미·한중·미중·미일 이런 21개 국가 간의 성과 있는 정상 회담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의전의 완성도입니다. 그렇지요, 의전의 완성도. 여기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거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점강법을 통해서 미시적인 것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전 한덕수 총리하고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지원단장 오셨는데, 뭐 하셨어요? 그동안 지사님은 뭐 하셨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도정에 이렇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진 위원 왜 거짓말해요. 대통령 출마한다고……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얘기했고, 일시적으로 출마하시는……

○이병진 위원 일시적이지가 아니고 집중해서 해도 부족한데 탄질을 하셨지요.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엄중한 문제 제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정 확정됐습니까, APEC 일정?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확정돼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25일부터 11월 3일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11월, 그전입니다.

○이병진 위원 확정, 언제부터 언제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저희가 하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들의 일정은 대외 공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안이나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확정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25일부터 3일 그 사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약간 유동적인 것……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10월 말에서 11월 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여기 지금 초청장 6~7월 발부 예정, 1차·2차. 보통 6개월 전에는 국제 관례상 초청장을 보내야 되지 않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6월에서……

○이병진 위원 정상……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6월에서 7월쯤에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보내지 않은 거지요, 공식적으로?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보통 두 차례 정도 보내는데요.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두 차례 보내는데 6개월 전에 한 번 보내고 또 임박해서 한 번 보낸단 말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안 보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해서 초청을 직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오실 걸로 보지만 제가 4월 중순에 중국을 가서 우리가 기준점을 열리는 날만 오지 말고 그 전에, 2박 3일 전에 온다든지 끝나고 2박 3일 머무는 이런 국빈 방문을 얘기드렸거든요. 외교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초청을 하고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보통 그런 다자회의는 전후에 양자 방한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여러 국가들과 조율을 합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우리가 균형외교를 외치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푸틴도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정일도 오면 좋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당연히 와야 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다른 회의를 보니까 페루의 리마 회의나 방콕의 회의, 21년도의 뉴질랜드 회의는 21개국 다 참석했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3년도 회의에는 콜롬비아·피지·인도를 초청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주 APEC에도 초청국이 따로 있습니까, 회원국 이외에?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지금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을 초청하려고 몇 개의 후보국들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기준이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기준을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저희 의장국의 재량이라서 저희가 여러 방안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의장국의 재량이면 우리 주제에 맞게 그리고 또 우리가 경주 선언 하는데 초청국이라도 그런 것에, AI라든가 이런 데 부합하는 그런 나라가 초청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달희 위원** 김지준 기획실장님, 제가 지난번 4월에 2차 회의 할 때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가 국제회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국격이나 우리나라 홍보가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그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는 그 지역 홍보라든가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걸 많이 홍보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두리몽실 이렇게 보고하신 홍보 계획이 국내용입니까, 국외용입니까? 온라인 홍보라든가 홍보영상 송출, 인터뷰·기고 이런 부분이 대체로 국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현재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국내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렸고요.

○**이달희 위원** 그런데 국내 사향을 이렇게 짝 보고하셨는데도 우리 지역언론에서는 홍보가 너무 미약해서 국민들께서 APEC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가을에 열린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것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국내용인데도 이렇고.

둘째, 이제 해외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주에서 APEC이 왜 열리는지, 경주에서 APEC을 열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저희가 사실 경주를 선정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이스탄불이나 로마같이 그런 도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경주는 천년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 저희가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우리 K-컬처, K-드라마, K-팝 이런 한류문화의 역사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유구한 역사성을 좀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 경주를 에워싸고 있는 포항·울산·구미·창원 이런 첨단산업도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거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외의 홍보는 저희들이 다른 여러 행사를 체크해 보니까, 재외한국문화원이 있지요? 우리 한국문화원을 거쳐 간 사람들은 한 40% 가까이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을 적극 활용해서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우리가 경주에서 왜 APEC을 개최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계엄과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까지 국가적 격변기에 APEC 준비를 위해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관련 공무원분들한테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주호 교육부장관님이 준비위원장이신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는 한덕수 총리께서 하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원래 준비위원장은 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한덕수 총리께서 준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국가적 시기에 갑자기 대선 출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지셨는데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일단 준비위는 그다음 대행분이 또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가셨 습니다.

○이연희 위원 경북에서는 김상철 단장이 나오신 거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5월 달 대선이 한창인 시기에도 APEC 준비위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 을 것 같은데 경북도지사께서 주재한 회의가 있었나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도지사께서 직 접 챙기셨고 그다음에 정치 일정하고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부지사가 대행을 했고 평소 우리 경북 도정은……

○이연희 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 대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 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가 각 분야마다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로 아프신 분이 대선에도 출마를 하셨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모르셨고 그다음에 여타 사례라든가 그런 관례에 따라서, 도민들 뜻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하게 준비를 챙겨야 될 도지사께서 현재 입원 중이시 고 또 그 전에는 대선까지 출마하셔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준비할 의지가 계신가 하는 부분을 국민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로 준비가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인프라라든가 저희들 현재 지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준비 지원 관련해서는 교통·수송·의료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해 서는 로드맵에 따라서 또 국회 특위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 다.

○이연희 위원 저희 APEC 특위 위원들 실사단이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가서 보니까 정상회의장 주변의 보문순환로랄지 보문호반길 등 주요 도 로와 경관이 매우 노후화돼 있더라 하는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런 것은 지 금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비 지원해 주셔서 거 기에 따라서 경관 조명하고 주변 산책로, 간판 정비하는 작업들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용강네거리의 교차로 확장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 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확장공사……

○이연희 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경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것은 김상철 단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 및 VIP 전용병동 이것은 어떤 분이 알고 계신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 부분은 동국대에 국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지방비하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병상하고 응급의료실의 장비 확충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의 지금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93억 정도 됩니다, 자부담하고 해서.

○이연희 위원 거기에 장비 구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원래 계획에는 26종의 장비를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7개를 하시겠다는 건지 14종을 구입하시겠다는 건지 예산이 지금 다 달라요. 장비 구입 예산이 9억 9000인지 아니면 17억 2000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 알고 있는 분 안 계세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병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세부적으로 집행내역하고는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주요국 정상 준비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응급의료센터, VIP 병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준비돼 있나를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산을 지금 92억을 했는데 장비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전체 92억 2000이고 저희들 자부담 28억 2000 포함해서 8병상을 증설하고 전용병동 18병상을 전용으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의료장비 예산이 얼마냐고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위원입니다.

윤성미 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정상회의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점점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회담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숙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각종 대책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회의가 나름대로 기억에 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어그리먼트(agreement)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 선언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주제 자체는 보면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원국들 간의 합일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선언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올해 APEC정상회의 주제와 중점과제가 현재 APEC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경제 통합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서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과 기술 발전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증진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정상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선언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그것은 우리의 의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회원국들한테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듣고 하는 부분들의 절차가 아마 진행 중에 있을 텐데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아직 초안은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3차 고위관리회의가 8월 달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논의사항을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8월, 9월 정도에……

**○이만희 위원** 8월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콘텐츠가 정리되고 초안이 만들어질 거라는 말씀이지요?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와 함께 지금 핵심 성과로 지속적인 AI 협력이라든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성과문서 도출에 대한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핵심 성과에 대해서는 주요 요소를 저희가 이미 식별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 때 회원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6월 말 7월 그리고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장을 발송 예정이신데 회원국들의 참여 여부가 거의 다 확정적으로, 정상 참여 여부가 확정적으로 알려지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저희가 예전 사례를 보면 21개 회원이 거의 대부분 다 정상급에서 참석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대참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도 정상이 전부 참석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이만희 위원 대략 9월 말 정도 되면 대충 다 윤곽이 드러납니까, 참석 여부가?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대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지준 실장님하고 또 경상북도의 김상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도 괜찮아요.

지금 PRS를 포함해 가지고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외적인 하드웨어 중에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거나?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현재 만찬장 조성이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게 유일합니다.

○이만희 위원 만찬장.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만찬장은 거기가 유적……

○이만희 위원 언제 그러면…… 그게 9월 말에 완공 예정 아닙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완공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공기를 앞당기거나……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모든 게 다 완전히 셋업이 된다 이거지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게 제일 늦게 되는 겁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나머지는 다……

○이만희 위원 PRS 문제는 어떻습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PRS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가장 늦게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호텔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노캄하고 더케이호텔인데 그 호텔은……

○이만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차질 없이 9월 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만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5년 경주 APEC정상회의에 대한 홍보, 국내·국외적으로 특별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이성우 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강인선 차관님, 차관님이 APEC정상회의 준비 전반을 다 총괄하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기반시설, 의전 또는 결과문서 그리고 CEO 서밋 이런 것까지 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원래 차관 고유업무만으로도 많이 바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다 챙길 수 있습니까? 이제 행사가 많이 남지 않아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사실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겸임으로 다른 업무를 챙기면서 APEC도 같이 챙겼는데 이제부터는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나 또는 준비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사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교부2차관이 기획단의 부단장을 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다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차관급 인사에게 부단장을 맡겨서 그 사람이 전임·전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그렇게 해서 추진력을 좀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원 위원 신정부에도 보고가 됐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보고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 생각에는 APEC 행사는 정상회담 행사가 메인이지만 CEO 서밋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 행사는 우리 정부도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각국 대표단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CEO 서밋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CEO 서밋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경상북도에서는 코리아 세일즈한다고 경제 전시장도 142억 들여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CEO가 적게 오거나 또는 참석한 CEO들이 불만이 생기면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큼니다.

대한상의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CEO 행사를 위한 여러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서 그 문제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 APEC은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CEO 서밋, 기업인들 특히 유명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건데……

○홍기원 위원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요. 예를 들면 지금 ‘APEC 기간 숙소 가격이 평상시 대비 세 배 내지 네 배 올랐다’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쪽에서 할……

○**홍기원 위원** 경상북도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관련되는 부분들 시민운동 관련해서도 했고 현재 법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홍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 이거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홍기원 위원** 그리고 '5성급 호텔이 두 곳밖에 없어서 CEO들은 주로 경주 외곽 인근 도시 호텔 사용하는데 외식 인프라가 부족해서 특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조치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이 지방 차원에서 숙박 관련해서 전문 PCO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이든 각국 대표단 특성에 따라서 관련된 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홍기원 위원** 이성우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맞아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홍기원 위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현재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CEO들이 이용할 주공항으로 포항경주공항을 전담 공항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던데 그것도 잘되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지난번 회의에서 국토부에서 포항경주공항을 기업인 전용기 주공항으로 지정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만 남았……

○**홍기원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모자라서 크루즈를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크루즈는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위 출입국, 검역 조치를 그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협조하는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잘되고 있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현재 8개 부처와 협의 중인데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면제를 추진해 준다고 했고 다만 관세청 세관검사 그다음에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항만 보안검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승하선 시 글로벌 CEO와 그 배우자들에게 세관검사와 보안검색을 한다면 상당히 또 VOC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기원 위원** 그래서 협조가 될 것 같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잘될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저는 제기한 그런 애로사항들이 당연히 다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도 이런 내용 다 챙기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다 알고 있고요. 계속 그때마다 대책회의가 열려서 계속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그런 사안들이 관계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각 부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도 그걸 대한상아가 다 해결하도록 하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총괄하는 외교부에서 그걸 다 나서서 조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강인선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때요 특임대사 미임용 나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데 지금 특임대사 미임용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4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던 이유는 나름대로는 탄핵 정국이다, 이런 이유도 아마 있었겠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주권 정부다 이래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추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이미 아그레망은 받았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천을 하셔서 빨리 대사 임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처에서 대표로 다들 오셨는데 그동안에, 해양수산부의 최현호 국제협력정책관님 오셨지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이인선 위원** 지금 4월, 5월 중 걸쳐서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해양수산부도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장관회의에서 보면 지금까지에 비해서 걸맞지 않게 장관들의 직접 회의 참석이 저조했었다고요. 그렇지요? 저조했었지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이인선 위원** 특히 해양장관회의에서는 장관이 두 분밖에 안 오고 대부분 실무자 내지는 급이 좀 낮게 참석을 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차관급까지 하면 장차관급에서 열네 분이 오셨습니다.

○**이인선 위원** 조금 저조했고요.

그리고 그때 보면,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보통 회의를 마치고 나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다른 부처 장관들은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는데 해양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장 성명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의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있을 이런 예비 사전회의에는 반드시 의제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본회의, 10월 말에 있을 장관 경제 각료회의 때는 의제 설정을 잘해야…… 입장이 좀 난처하면 잘 안 하려고 한다고요. 의제 설정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위원님, 한말씀만……

○이인선 위원 예.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해양관계장관회의에서 의제 관련은 전부 다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인선 위원 그래서 러·우 관련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APEC 대한상에서 나온 추진본부장님 계시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이인선 위원 지금 대한상에서는 업무보고를 보면 호텔이 부족하니까 홍콩 선사 크루즈 대여를 한다고요? 맞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걱정은 어쨌든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화재, 테러, 의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대응이 제대로 될 건가 하는 불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승객이나 승무원 수가 많아서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플로팅 호텔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관광 효과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통 들어가고 나면 다시 나와서 관광의 효과가 적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안내를 하시고 홍보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이인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플로팅 호텔을 한다는 것은 개도국에서, 지난번에 파푸아 뉴기니 같은 개도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프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지금 김상철 단장님하고 송호준 경주 부시장님이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추경을 하면서 신청했던 건 10개 사업에 459억이었는데 최종 확정은 7개 사업에 163억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현재의 인프라하고 관련돼서 회의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인선 차관님,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G7 국가의 초청 대상으로 나가시게 되면 전초전으로 우리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나가셨을 때 거기에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누구가 되든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에 가서 뭔가 현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면밀하게 잘 준비하고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이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장경태 위원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면 준비부단장은 있는데 준비단장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장호진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보가 준비단장이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공동단장이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공동단장. 그러게요.

그분이 어디 가셨지요, 지금? 6월 2일 자로 퇴직하셨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게 알고……

○장경태 위원 그분이 준비단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내역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공동단장으로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경태 위원 회의 참석 일수와 회의 참석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다 제출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준비위원회는 다 참석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 5월 20일에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정박 대비 점검’이 현재 언론 보도상 나오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2025년 5월 20일. 그리고 나서 6월 2일 날 퇴직하셨어요. 준비 아무튼 잘하셔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왜 준비단장은 어디 가고 부단장만 나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금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상근 부단장제 도입한다고 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장경태 위원 특별법 12월 20일 날 공포됐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언제 하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한 5월……

○장경태 위원 5월 22일 날 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때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공포 후 22일에 입법예고하면 언제쯤…… 시행령 공포까지는 언제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관계부처 검토 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한 6월, 7월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

○장경태 위원 6월 내에 된다고요? 빨라도 7월 초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법 제안된 게 작년 8월 30일이었고 의결 11월 28일이었고 공포 12월 20일 날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해서 지금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10월 말 APEC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절차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시행령 단계별 소요 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잘못이 있겠지요.

김상철 준비지원단장님, 방금 저 듣다가 좀 황당했는데 다른 존경하는 모 위원님 질의에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장경태 위원 이것 만약에 10월 말에 준비 안 돼서 사고 나면 본인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응당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이 권한 있는 하에서는, 업무 범위 내에서는 책임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제미디어센터 지금 공정률 20%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원래 당초 9월 말입니다마는 지금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름 정도 더 당길 생각입니다.

○장경태 위원 국제미디어센터 완공이 9월 말이요, 시설 완비까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정도 더 당기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만찬장은 지금 공정률 5%입니다. 언제쯤 완공되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것은 한 달 전까지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전시장은 공정률 15%입니다. 언제쯤 완료되시나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도 저희들 45일 전까지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야간 작업과 휴일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장경태 위원 차질 없이 하시리라 믿고요.

주차 공간도 공정률 20%……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 공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부단장님, 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석 인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정부대표단 4000명, 경제인 1500명, 기자단 1000명, 지원 인력 1000명, 최소 7500명, 최소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하루 연인원이 제일 많은 날짜입니다.

○장경태 위원 최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많이 와야지요, APEC.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최소……

○장경태 위원 이 규모 이상인데, 그러면 하루 연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보된 객실 수를 보면 경주시 1300실, 인근 도시 1100실, 만약 크루즈 대여해서 850실 해 봐야, 다 해 봐야 한 3000여 실 조금 넘는 수준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500명이 오는 것은 오는 그 일주일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날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확보한 숙소는 경주 인근에 한 7700개 객실 정도 되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그 인근 도시들을 활용해서 한 이삼천 객실 정도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만 개 객실 정도 이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수행원이나 진행 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크루즈 임차 관련 협의도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크루즈는 사실 그것은 대한상의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계약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겠어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대한상의 이성우 상무입니다.

크루즈는, 850 객실 피아노랜드호는 저희가 법적 효력이 있는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박할 터미널이, 그 슬롯이 지금 현재 포항해양수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할지 그다음에 컨테이너터미널을 할지 그게 지금 현재 이슈였는데 어제 홍콩 선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지막 계약서, 본 계약서 문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우리 강인선 차관님을 비롯해서 김상철 단장님, 송호준 부시장님 또 윤정인 부장님 등 등 문체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해수부, 상공회의소까지 진짜로 정부, 지자체가 총동원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좀 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설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고 해 본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안 오면 이것보다 아쉽고 허무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국들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시진핑 초청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미국의 참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저희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과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짧게 답변……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미국의 경우는 보통 결정이 좀 늦습니다.

○조정훈 위원 늦다고 하면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절차들은 계속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과거의 전 APEC 등등을 봤을 때 미국의 참석 확인은 한 달 전, 일주일 전, 언제쯤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확인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10월인데 7월 달?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조정훈 위원 저희도 그러면 다음 달이네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미국이 빠졌다 그러면 약간 양꼬 빠진 찜빡 같다는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초청장 공식 여부에 상관없이 이것은 이미 대사관에서 총력전을 벌이리라고 짐작하고 있고요. 소위 주요국들의 참석에 누락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들 정서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신정부의 첫 번째 외교인데 이게 신정부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국가의 얼굴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인 건데요. 아마 이것은 외교부보다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김상철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였나요? 만찬장이 한 달 전 완성된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너무 빠빠하지 않습니까? 공기에 완전히 딱 맞춰서 하는 공사 드문데, 부실이거나 지연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부실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설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고 저희들이 감리하고 현장 감독이 있기 때문에 안전 담보하에서 공정 반드시 지켜서 하도록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현실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플랜 B 있으세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우양미술관이나 또 기존에 호텔도 검토가 됐습시다마는 저희들 현장에서……

○조정훈 위원 만에 하나 공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행사의 만찬장을 한 달 전에 완성한다. 이거는 불안하지요. 안 불안하십니까? 상당히 불안한데요. 이것을 플랜 B 없이 이것만 믿고 그냥 여기다가 올인하시겠다고요, 만찬장에?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당초에 거론되었던 실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대통령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도 플랜 B를 플랜 A처럼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저는 두 발 뻗고 주무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플랜 B 만찬장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당초에 검토되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뭐 45일 전 완성이다. 한 달 전 완성이다. 아니,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에 어떻게 만기일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번 제대로 된 약식 만찬도 못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한 달 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그리고 잠깐 외람되지만……

○조정훈 위원 저 같으면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솔직히 이것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라고 인정하시고 총력을 다해서 매주 점검을 하시든지 매일 점검을 하시든지 그리고 결정상 ‘아차, 이것 안 되겠다’ 싶으면 플랜 B로 가야지요. 이것 뭐 맥도날드 가서 먹을 것 아니잖아요. 김밥집 가서 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올인을 이렇게, ‘한 달 전에 완공됩니다’ 이것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주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7000명, 5000명, 엄청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애국심 그리고 경주에 대한 자부심으로 다 참아 주시겠지만 이 경주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불편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로 공직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홍보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경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홍보를 총력으로 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무슨 정상 왔으니까 여기 못 다닙니다’ 이것 좋아하지 않아요. ‘경주에서 하니까 다 참아야지’ 이런 생각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주 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 불편 이런 것에 대한 보상, 대책 이런 것은 반드시 홍보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시민 참여와 공감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대학도 해서 하고 있고 어제든 저희들 K-MISO 선포식이라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친절, 청결, 안내, 미소 이런 자발적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옛날의 쌍팔년처럼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세워 놓고 깃발 흔드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일상의 삶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통 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 사람들 오면 미소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교육하고 있다고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자발적 참여 속에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게 자발이라고요, 진짜로?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서 시민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민주당 정부의 첫 번째 국제 행사인데 걱정 안 되십니까, 이런 태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소 교육을 시키신다고요? 이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기현 다음 질의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 경주에서 APEC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먼저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찬장 공사가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3월에 착공한다고 목표를 두었는데 두 달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오늘 업무보고 발표를 하시는 것 보니까 ‘5월에 착공하였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만찬장이 조성이 되면 한 달 기한을 두고 그 안에 안전 점검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만찬장 행사라든지 아니면 만찬을 서비스하기 위한 동선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내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실제 문화행사 프로그램 구체 계획은 6월 말에 전체 만찬장 배치 계획에서부터 구체화됩니다.

○김재원 위원 그것은 계획이시지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그 계획을……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만일에 만찬장이 그때 한 달 전에 완공이 되고 그런데 무슨 안전 점검상에 문제가 생겼다가거나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플랜 B가 가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플랜 B는 저희가 애초에 검토 단계부터 실내에서 하는 방안이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플랜 B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 놓고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볼 시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된 예산들이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프로젝트별로 집행하였거나 혹은 새로 집행될 사안들, 집행되고 있는 사안들 모든 위원



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편성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혹시 예산이 필요한지도 점검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지준 실장님, 숙소 부분에 오늘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포항 영일만항에 크루즈선을 띄우겠다, 대한상회가 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느껴지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지난 회의 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항은 주변의 숙소까지 하면 다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지금 크루즈선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개발도상국 마냥 이렇게 크루즈선을 띄워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왜 미리 검토를 안 하셨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쭙볼 것은 경주 지역의 일반 교통 흐름,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이 교통 흐름이 있을 텐데 경주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런 사전 대책이 마련돼 계신지?

또 공항, 숙소, 행사장 간에,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러한 동선들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먼저 크루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크루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숙소를 회의가 중간쯤 규모로 이루어졌을 때 과거 평균치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대한상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르면 가장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성황리에 4000명 이상의 경제인들이 참석했을 때를 상정해서 그 크루즈 숙소를 CEO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CEO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있었을 때 조금 더 숙소를 여유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발적인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전체 수요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 그 시뮬레이션 작업도 지금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실제 행사 기간 중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은 크루즈를 동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통제 체계 이런 것들 점검하신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척 사항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APEC정상회담과 관련돼 있는 전체 부처 및 소관 기관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유관 부처들과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은 각 진척 상황 혹은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혹은 프로젝트 내용들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간략하게라도 보고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체회의를 하는 게 이런 내용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준비가 되었느냐 말았느냐를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관계 부처 담당 고위공무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비상계엄, 탄핵, 대선. 격변 기간 중에 열심히 담당 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 내용을 돌아가셔서 각 부처 기관의 장관님, 차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차관이 곧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시간, 그만둘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장관·차관이.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조치할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APEC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언론에서, 국민들도 걱정하시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경제도 좀 살아나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외국 자금이 하루에 한 1조 원 이상 들어오고 있고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PEC이 떨어진 국격을 높이고 경제 살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외교부의 답변하시는, 공식 초청장은 6월부터 나가신다고 그랬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

○정일영 위원 구두로 말씀…… 고개 끄덕끄덕하면 압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 좀 태도가 영, 고개 끄덕끄덕……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런 건지?

제가 외교부를 왜 불신하냐면 지난 2023년 11월 28일 날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형편없는 그 예측과 그 득표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망신, 우리 국민들의 실망 엄청, 그거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

○정일영 위원 예? 답변을 하세요, 시간 가는데.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기억합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정부에서 다자·양자 회담 20개국 이상하고 했는데, UN하고도 해보고, 그 당시 외교부는 대부분 예측을 잘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외교부는 그때 우리나라가 1차, 2차 거쳐 가지고 될 것처럼 그래 놓고 1차에서 29표밖에 못 얻어……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6월 달에 초청장 보낸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것만 믿고 계속 게 아니고, 지금 대사관 대사들 뭐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계속 접촉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라, 어느 정도 참석할 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모든 회원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얼마 전이나 똑같은 막연한 얘기만 하시네.

그러면 비회원국 초청, 2~3개국 초청을 지금 염두에 두고 국가 정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정일영 위원 검토 중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지금 차관님하고 윤성미 고위관리회의 의장님, 윤성미 의장님은 회의만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반 업무를 챙기고 계십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제가 실무 업무도 챙기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2~3개국, 몇 개국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숫자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그 사례를 보면 적은 숫자, 1개국에서……

○정일영 위원 아무튼 그거 포함하고요. 참석 대상인 국가들 해 가지고 그동안 외교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틀 정도 뒤에까지요. 예?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만찬장, 경북 단장님인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정일영 위원 제가 경주에 갔을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경주박물관 뒤에, 우선 저는 그 장소부터가 마음에 참…… 아니, 걱정이 돼요, 걱정이. 어떻게 박물관 뒤에가…… 어쨌든 그건 바꿀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한 달 전에 만찬장을 완공한다는 이런 진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무사안일한…… 아니, 이게 뭐 경북도가 책임진다고 끝날 일입니까?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플랜 B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오셨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교통 문제, 국토부에서 볼 때는 문제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저희가 항공·철도·도로 부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일영 위원 경찰하고…… 도로·교통이 특히 중요한데, 경주가 공항이라든지 철도 등등 부족해서. 경찰하고 협조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점검도 했고 지금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운영하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대한상의회에서 요청한 걸로 아는데 대구, 포항경주공항 CIQ, 대한상의회에서 누구 오셨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정일영 위원 크루즈도 CIQ가 필요하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크루즈 CIQ나 공항 CIQ 이게 지금 법무부하고 관련되는 기관들, 세관도 있을 거고 다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법무부·질병관리본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관세청은 세관검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원 특위니까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상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저희 보좌진들 이야기 들으니까 자료가 참 늦게 오거나 잘 안 온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 하신 것만 가지고 좀 여쭙보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APEC이 국가 행사인가요, 아니면 지방 행사인가요? 경주 행사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국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경주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섯 번 갔습니다.

○조인철 위원 다섯 번이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거 준비했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준비는 작년 6월 이후입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APEC준비지원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부단장입니다.

○조인철 위원 부단장인데 다섯 번 밖에 안 가셨다고요? 저희도 4월 달에 특위 구성되고 나서 전체가 한 번 갔었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참고로 저희 주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참고로 주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조인철 위원 작성해서 정식 보고가 아니고? 이름이 다 달라서 그래요. 이 2개는 APEC정상준비기획단이고 이거는 외교부 마크가 찍어져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준비기획단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원단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준비기획단 아니에요? 준비기획단이 있고 준비단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니, 경주의 경우에는 지원단이고요.

○조인철 위원 준비기획단은 뭐고 외교부는 뭐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준비기획단은 범부처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인철 위원 외교부는요? 이것 보고하는 사람은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보고하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준비기획단에서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하지요? 이 행사가……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괜찮으시면 저희……

○조인철 위원 아니, 이 행사가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당연히 저희가 목표한 대로……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요? 어떤 목표로 해야 그 목표가 달성될 거 아니에요. 지표가 뭐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세웠던 주제와 핵심 과제 그런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보여 주고자 하는 국격을 더 높이는 일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경주에서 만드신 자료인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국제미디어센터 20% 공정률이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20% 공정률이에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이 실시설계 했고 전체 공정 중에서 기초부터……

○조인철 위원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20%라는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전체 공정 중에서 20%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서? 그러면 언제에서 언제까지 시간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임 스케줄로?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해서 타임스케줄로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조인철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난 6월 27일 날 개최도시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다릅니다마

는.....

○조인철 위원 이것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계도상에서 진척 정도를 따져 본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언제 착공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착공은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날 착공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4월 11일 날 했는데 20% 했다고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9월 달 완공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현재 9월 말인데.....

○조인철 위원 7~8월, 2개 남았네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가 그때 완공이 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가능합니다.

○조인철 위원 4월부터 한 게 20%인데?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4월 11일 날 했고 지금 두 달 정도 흘렀습니다.

○조인철 위원 3개월 만에 80%가 된다고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초 하고.....

○조인철 위원 산수가 안 되잖아요. 공정률이라는 게 4월 달부터 해서 지금 20%밖에 안 했는데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100%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순서가. 산수가 안 되는데?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전체 공정률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8월 중순까지 100%로 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터파기.....

○조인철 위원 아니, 설계도에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를 가지고 지금 공정률을 따지셨다면서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세요, 나오나. 그 밑에 5%도 마찬가지로입니까, 만찬장? 이거는 더 한심해 보이는데.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통상 현장에서 기초부터 철골 세우고 지붕 세우고까지 전체 공정 중에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20%, 15%, 5% 정도 진척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인철 위원 공정률 정확하게 다시 따져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강인선 차관님, 보다 정확하게 어떤 목표하에서 뭘 하고 있는지, 4월 달에 저희가 업무

보고 받은 뒤에 지금 업무보고하고 뭐가 바뀐 건지 저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저는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1991년도에 서울 APEC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부산 APEC이 있었더라고요. 20년 만에 다시 경주 APEC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단순한 APEC을 여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외교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가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많이 흔들렸었는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제 행사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강인선 차관님, 이번 경주 APEC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전에 나온 몇 가지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뭐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대한상에서 한 게 있던데.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대한상에서 나온……

○김태선 위원 대한상에서 한 게 7조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취업유발효과 2만 명 정도하고 또 경북연구원에서 자체조사한 것도 있어요. 이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참 유감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니, 숫자를 잠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결국 이 행사가 경주 한 곳의 한 지역 행사가 아니고 동남권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김태선 위원 그리고 APEC정상회의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때 각국 정상들도 오고 고위급 인사도 오고 외신기자도 오고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 다 와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교, 경제, 문화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문화 방문 프로그램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 5월 달에 러시아와 홍콩 회원국들이 울산과 포항을 방문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김태선 위원 울산은 어디 방문했었지요, 이분들이?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지금 정확한……

○김태선 위원 현대자동차 방문했지요? 현대자동차 방문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김지준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홍콩 회원국들이 울산, 포항을 방문했는데 어땠다고 합니까? 피드백 받아 봤습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구체적인 피드백은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런 거 조사 안 합니까? 그러고 끝납니까, 그냥?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아닙니다. 저희가……

○김태선 위원 평가 안 합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실제 관계 부처와 전체 회람을 통해서 산업……

○김태선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 봤는데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평가를 해 갖고 향후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프로그램 한 번 하고 나서 끝입니까, 그냥?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

○김태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단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전체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행사 전체를 조사했고요. 그 조사 계획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김태선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향후에 정상회의 주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 게 어떨지 미리 좀 해 보고 그 영향을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잘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맞겠지요, 당연히?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K-이니셔티브, 대한민국이 주도적이고 그리고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저는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각국에, 각 나라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 그리고 방위산업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경주하고 울산하고 붙어 있어요.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반도체, AI, 배터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 제안을 하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음악·게임·웹툰 이런 부분,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안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이미 여러 가지 검토 다……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홍



콩 내용도 구체적인 반응을 못 받았을 뿐이지 방문한 기관 그다음에 각종 내용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의 반응을 받지 못했고요.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런 방문을 기획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 그것을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선 위원** 그것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국가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드립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신 본부장님, 잠깐만……

크루즈 계약이 이미 끝났다고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크루즈가 며칠 동안 이 항만에 머무르는 건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4박 5일 머무르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4박 5일이면 5일 정도네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 오는 기간이 한 4박 5일이고요.

○**임미애 위원** 머무는 것은 4박 5일.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5일이고 또 가는 시간 4박 5일 해서 총 15일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그쪽에서 와서 보고서, 저희가 지금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여객터미널하고 컨테이너부두하고 두 군데인데 현장을 와 보고 나서는 컨테이너부두로 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로 접안하지 않고 컨테이너부두로 접안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나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부두가 한 300m 정도입니다. 저희가 도입하게 될 피아노랜드호는 크루즈선 길이가 263m입니다. 그래서 한 대가 들어오면……

○**임미애 위원** 다른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는 크루즈……

○임미애 위원 그러면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 다른 컨테이너 선박하고 접안하는 일정이 조율이 되거나 이런 것은 좀 되어 있나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PICT라고 포항영일만신항 운영하는 회사와 그 하주들과의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인데 저희 정박 기간에는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선박들하고 접안 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리미리……

이것은 누가 담당하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해수부 쪽에서 담당관이 담당하시나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포항 해양수산청에서……

○임미애 위원 해수부 쪽에서……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포항영일만신항주식회사에 20년간 임대를 썼기 때문에 포항영일만주식회사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현호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님, 지금 컨테이너부두에 정박을 하게 되면 CIQ 시설은 어디다 하게 되나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CIQ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건물 형태로 하게 될……

○임미애 위원 아니, 아직도 이게 협의 중이면 이것 설치 못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수부 쪽에다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APEC 행사 전에 국제여객터미널 혹은 화물터미널에다가 CIQ 시설 설치할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소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 대책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지금 컨테이너부두에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부분이 결정된 게 대한상에서 6월 5일……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며칠 안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며칠 안 됐는데 저희가 이 걱정은 뭐냐 하면 어쨌든 CIQ 시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지금 저희가 성공적인 행사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 발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시설 분할 발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10월 중까지 내부시설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위원님, 그 부분은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활용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국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부두에는 이게 설치가 가능해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외교부에서도 오늘 국무회의 때도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차 추경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5억 추경을 편성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이유는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걱정이 많이 됩니다. 컨테이너부두로 확정된 것이 늦었다 하더라도 미리 이런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들어오는 분들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검역도 해야 되고 출입국 업무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야말로 임시보안구역을 설정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항만 보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 문제도 저희가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또 국정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임미애 위원** 오물·오수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크루즈를 띄워 놓으면, 이게 보니까 4일 기준으로 해서 약 6000만 원 정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담금만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그 부분도 지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이 될 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 듣기 전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크루즈가 정박을 하게 되면 하루 약 100t가량의 오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 또 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도 지금 전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아까 말씀한 그뿐만 아니라 청소라든가 전기 부분까지도 지금 대한상에서 요청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윤성미 의장님 여기 계시지요?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柳榮夏 위원** 먼저 지금 준비기획단에 범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는 거지요?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실무자들께서는 APEC이 끝날 때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상철 부단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단장님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원특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섬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지사님이 와병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부지사랑 경제부지사 두 분이 계셔서 하지만 지사님이 계시는 것하고 또 부지사가 대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 행사가 경주시의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행사거든요.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만찬장 공사 현장 이걸 질의를 들으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정상들이 와서 만찬장 이런 데 보면 선발대 있습니다, 경호들이. 선발대가 와서 전부 시물레이션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동 경로도 A 통로, B 통로 다 합니다. 플랜 A·B를 갖고 유사시에 어떻게 이동될 거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와서 자기들이 만찬장을 보고서 경호의 위해 요소가 어딘지 이것을 다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게 6월 말부터 우기입니다. 아주 장마철이에요. 그럴 때 과연 공사가 지금 화창한 날씨에서 예정된 공기를 맞출 수 있냐,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까 보니까 휴일도 공사하시고 야간공사 하신다는 데 서두르다 보면 공사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되 책임감을 갖고 하시되 좀 더 여유 있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주시?

○경주시부시장 송호준 예.

○柳榮夏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부시장님!

○경주시부시장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송호준입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좀 안 보여서……

지금 제가 보니까 경주시도 유치 단계부터 시민 캠페인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게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미소로 맞는 그런 식의 시민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정상들이 오게 되면 교통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오시잖아요. 그 불편을 시민들이 다 감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하셔서 이러이런 불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된다 그것을 미리 고지를 하세요.

○경주시부시장 송호준 예.

○柳榮夏 위원 억지 미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일반 소형 숙박업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택시 뭐 이런 요금들이 있어요. 혹시 요금체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경주시부시장 송호준 예, 저희들 2회에 걸쳐 이미 택시 업계 종사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지리적이라든지……

○柳榮夏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 바가지요금

있었어요. 그 바가지요금이 나오게 되면…… APEC이 되고 나면 뭘니까, 다낭 같은 경우는 APEC 되고 난 다음에 관광수가 5배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바가지요금 한 번 보도되면요 우리가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것 철저히 단속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피해당했을 때 피해 신고를 하고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창구도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국가에서 오다 보면 영어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국적 언어에 대한 소통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리단길하고 보문단지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주를 자주 가 봤는데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노점이 좀 있습니다. 노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APEC 기간 동안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분의 생계도 달려 있지만 그 노점의 호객행위로 인해서 또 전체 국가 이미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도 차원에서,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시민대학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주시부시장 송호준 예.

○柳榮夏 위원 그 프로그램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경주시에서 시민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시민들 입장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주시부시장 송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저는 경기도 북부인데 경주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더 발전하고 또 경상북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APEC을 위해서. 그리고 APEC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준비하신 민간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윤후덕 위원 차관님, 어제 대통령께 보고했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오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어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윤후덕 위원 어제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두 분, 윤성미 의장님도 같이 보고하셨지요?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김지준 기획실장님도 같이 보고하셨지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윤후덕 위원** 신임 대통령하고 보고하는데 그것도 좀 의미가 있고 영광인데요. 저는 요즘 못 만나요. 텔레비전에서 보고요. 그전에는 같이 지근거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시면서 특별한 보고를 하신 게 있어요? 예산 문제나 또 진행하시면서 관계부처들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지 이런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기 좀 하나 해 주시지요.

차관님이 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공지를 하였던데 사실 저희가 대통령께 드린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괜찮아요. 보고한 내용을 국회에 와서 또 보고해도 괜찮아요. 옛날 대통령하고는 좀 달라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PEC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대통령께서 관심 사항이나 또 지시 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국민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한 것을 좀 더 당부하셨던 것 같아요.

차관님이 좀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려 줘야 국민들도 알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오늘은 11시 30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면서 APEC 참석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건 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윤후덕 위원** 뭐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또 15일 날인가 16일 날은 G7에 초청받아서 가실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윤후덕 위원** 거기서 다자간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대일로 APEC에 오시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많이 든든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지요. 거기서 안보실하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이 APEC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윤후덕 위원** 예.

APEC 관련 보고를 대통령실의 어느 파트너와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업무 협의를 하는 게? 안보실하고 얘기해요? 아니면 대통령의 비서실장하고 얘기……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다 알고 계신 것 같……

관련 업무가 안보실에서도 다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비서실장님께서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외교안보비서관이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으로 포함이 됐었어요, 제가 알고로는. 이것도 한번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비서실장님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보실장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두 개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윤후덕 위원 둘 다 필요하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윤후덕 위원 두 분 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의제를 다루는 의장과 인프라를 다루는 실장이 있듯이 그 두 가지 부분에 다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저희도 당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 크루즈 얘기를 하는데 크루즈가 한 척은 이제 계약됐다고 그러는데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필요하다기보다는 여분을 두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대한상의회에서 판단을 하시는……

○윤후덕 위원 크루즈에 대해서 대한상의회에서 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윤후덕 위원 보고 좀 해 보세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척은 계약되는 것 같은데 한 척을 추가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250 객실짜리, 한국에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총 850 객실은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 250 객실을 지금 추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크루즈의 관련 객실은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단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저희가 도입하는 이유는 크루즈에서 조식·중식·석식이라든지 관련된 공식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크루즈 도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누가 결정을 할 거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줘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크루즈선은 저희 기업인들 숙소 확보 차원에서 저희 대한상의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그리고 객실 크루즈를 빌리는 임대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참석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 안 하기 위해서 관련된 오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특위 여러분들, APEC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특히 차관님, 경북도에서 오신 김상철 단장님은 지금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아 혼이, 얼이 빠져나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더운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문자답해야지요. 아마 정치가 그동안의 공백이 없었으면 차곡차곡 진행됐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요. 유감이 있지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추경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지금쯤은 사실 정상적인 궤도라면 정상외, 우리나라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나 아까 울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포항 옆에, 정말 대한민국 제1의 산업단지들 이런 데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얘기가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경주하고 멀지 않은 거리지만 또 가 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위 위원으로서 같 것 같은데, 전체는 아니어도 소위 위원들이 한두 번은, 특히 정일영 간사님하고 이만희 간사님은 꼭 끼어서 중간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또 애로사항, 여름에 무리하게 건설하다가 사고 당하면 참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한번 보시고.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정상용 숙소 조성인데요. 정상이 와야 숙소를 제공하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트럼프가 옵니까?

시진핑이야 내년엔 하니까 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참 이 부분도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4강이 다 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철우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공언이기도 했는데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대 강국 내지 열강국들이 안보와 안전·경호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또 국가적으로 이런 상상도 해 보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구에 미군 부대 있지요? 거기 가서 하룻밤 자겠다 해 버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공히 확인했던 거는 트럼프나 4대 강국이



와서 경주에서 잘 만한 숙소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거 해소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우 본부장님 와 보시지요. 이성우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김형동 위원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세계를 누비셨는데 실패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참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험 삼아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플로팅 호텔, 크루즈 애기가 좀 엇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외교 사절이나 공식 오시는 분들을 위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거기 관광 오시는 분들이 크루즈에서 자고 아침에 선상에서 밥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김형동 위원 지난번에 여수 엑스포 때도 크루즈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걸 얘기를 해야지 뭐 애기도 안 하고 계속 꾸꾸하니…… 크루즈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상품을 파세요, 저도 제 가족 데리고 갈 테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아까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형동 위원 그렇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중국 배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홍콩에서 중국 사람들을 태워 가지고 제주도에서 내리게 됩니다. 관광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일 좋은 걸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실어 가지고 또 돌리고 그 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김형동 위원 그 얘기를 해야지요. 저도 엑스포 때 하룻밤 자 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하룻밤 재워 가지고 경주 관광시키고 경북 관광시키고.

아까 파주 윤후덕 위원님 지금 자리 비우셨는데, 인천공항에서 또 중국 들어가는 그런 상품도 만들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리고 내항에 크루즈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깥에 있으면서 서틀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상선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그리고 방해가 되면 그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크루즈 운행해 줬으면 좋겠고.

만찬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반월성입니까? 이름 뭐지요, 이름이?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대릉원, 동부사적지. 월지.

○김형동 위원 월지, 한번 플랜 B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드는 비용이면 경호와 안전, 저는 다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날 일부러 가 봤거든요. 박물관 뒤에 가건물 짓는 거 그게 과연 국격에 맞는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창원 성산 허성무입니다.

차관님과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크루즈 숙소 CIQ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것 그냥 관광객 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CEO들, 수행원들 숙소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수 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 성격은 다르지만 출입을 하고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편의 제공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수엑스포 때의 경험을 살려서,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지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분?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허성무 위원 결정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빠르게 이걸 진행해서 확실한 편의 제공 부분에 확정을 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5월 30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확정이 되면 빠르게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예.

○허성무 위원 이 문제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해결됐다는 거를, 그렇지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윤후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준비기획단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허성무 위원 보고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들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오늘 국회에 내놓은 수준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 자료는 아닙니다.

○허성무 위원 더 촘촘하고 세밀한 자료로 보고를 하셨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양은 그거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비서실로 들어가든 안보실로 들어가든, 다 들어가든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보고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것 같으니 준비를 좀 더 해라, 각별히 해라 이런 지시 말씀이 있었을 텐데 대통

령님께서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으셨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요?

대한상회의에서 대통령님한테 특별히 건의할 게 있었잖아요. 그것 건의하셨나요? 어제 같이 들어가셨나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저희들 배석은 못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배석 못 했어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허성무 위원 CEO 서밋에 참여할 세계적인 CEO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면담 시간들 할애해 주셔야 된다는 요청을 하셨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허성무 위원 그 뜻은 저희들도 이미 대통령님께 다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같은 중요한 날 그런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의 확답을 받아야 CEO들 유치하는 데 자신 있게 나갈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CEO들을 모시려면?

답변할 수 없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만사(萬事) 불여(不如)튼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세밀한 것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잘 전달하시고 또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국회를 통해서 전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쳐서 성공적이지 않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가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4월 7일 날 저희들 특위가 출범하면서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그때는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 준 거지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돼서 세계로부터 격찬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코 원전 수출이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들이나 이쪽 외교 고위 관료들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부분이 모든 행사마다 좀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나는 그런 기획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850평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네요.

추가질문 안 하고 그냥 여기서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김기현 어차피 추가질의 다 있는데 그때 하시면 안 될까요?

○허성무 위원 어찌할까요? 따로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1분 하시지요, 추가질의 안 하고.

○허성무 위원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설계에서부터 대형에서 앞으로 SMR까지 그리고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도 통과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두세 국가밖에 없는 특이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준비에 뭐가 더 부족한지 좀 챙겨 보셔야 하고요.

제가 특별히 여쭙고 싶은 것은 곧 G7 정상회담 가시는데 가서서 APEC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더 뭘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교부나 요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디테일한?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준비하시겠지만, 그렇지요? 그런 준비들은 좀 되고 있습니까?

김지준 기획실장님.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SOM 체어하고 외교부 경제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윤성미 의장님.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예.

○허성무 위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하면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현 마치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체 주질의가 다 마무리되었고요.

시작한 지 한 두 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3분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리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을 중심으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박수만 남는 것은 의전이라고 하고 회담이 끝나

고 기록이 남는 건 외교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APEC이 단순한 정상 간 회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 발전의 어떤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의제가 적절하게 선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우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우리 정부가 AI에 대한 100조 투자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패권의 각축장이 AI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AI의 패권을 가져가고 심지어 동맹국에게도 수출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자력으로 AI 부문에 있어서는 뛰어넘으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윤성미 의장님, 우리 산업계의 의견 한번 들어 봤어요? AI와 관련된 이번 의제 선택에 있어서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외교부가 산업계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 등 관련 부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가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한 60%의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에 또 메모리반도체, 세계 최고로 큰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이름을 구체적으로 명하겠습니다만—하이닉스가 바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 입장을 좀 반영해서 AI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인 곳이 한국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어떤 국가와 기업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외연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국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서 실질화시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미 의장님은?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첫 번째, AI 문제는 전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모든 APEC 회원이 동의를 하고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별 회원 또는 회원 간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APEC 회원 전체가 AI가 아태지역에 미칠 영향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발전 자체라기보다는 AI가 우리 전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교육·산업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산업계와의 협력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AI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파트와 관련해서 APEC 내에 있는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이라고 하는 자문위원회하고 협력해서 AI 이니셔티브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실래요?

○위원장 김기현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이병진 위원 3분 보충질의 한 번 또 있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1분만, 1분.

○위원장 김기현 1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다음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줌……

○**이병진 위원** AI 협력에 대한 단순한 어떤 선언이라든지 윤리 선언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고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대화라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APEC이 실질적인 양…… 미국 패권 경쟁의 뉴노멀화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경쟁 구도 속에서 AI 부분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통한 실질적인 우리 국가 위상도 확립하고 그다음에 산업계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시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이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국가고 기술도 갖고 있다……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강인선 차관님, 아까 2차 추경이 있는데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들어 보니까 강인선 차관님께서 만찬장 언제 되나 막 노심초사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 때문에 어찌 보니까 정신이, 혼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좀 하면 인프라 구축은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맡겨 두고, 사실 소프트웨어 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홍보 예산을……

김 실장님, 홍보 예산 1차 추경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기재부에 처음 신청하신 게 얼마입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100억 신청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100억 신청해서 지금 받으신 것은 얼마예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다 깎였습니다.

○**이달희 위원** 10원도 못 받으신 거예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본예산에 저희가 30억 반영된 것밖에……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지원특위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예산 지원해 줘야 되고요.

특히 문화행사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 AI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AI 첨단산업국가로 이런 문화행사에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문화행사하고 1만 원짜리 문화행사, 품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는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달희 위원** 아주 중요한데, 뒤에 보고서의 제일 마지막장에 만찬 문화공연, 정상 친교 행사, 배우자 행사…… 배우자 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 함께 오는 경제 관련 CEO들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경에 문화행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내서 적극 반영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 줄 수 있는 행사로 중

양에서는 이런 행사 준비를 하고 인프라 부분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일을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철 단장님, 그런 차원에서 이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은 이제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인프라 관련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셔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홍보·문화행사·의전 이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추경에, 적극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행사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님,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각 나라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7~8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한 방역대책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의료기본계획은 현장에서의 응급체계뿐만 아니라 그런 감염병 사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이연희 위원 김상철 단장님, 인프라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각국 정상들이 안전과 경호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응급의료 인프라인데……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응급의료센터 확장, 공사 들어갔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공사하고 있고 9월 달에 완공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9월에 완공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9월 완공 전까지는 각국 점검단이 왔을 때 응급의료 인프라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경주 지역 내에 7개, 영남권에 13개, 수도권에 4개 병원 해서 24개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담 의료진까지 구성을 마친 상태고요. 동국대병원에도 기존 병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로 VIP 병동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착수를 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공사는 지금 현재 착수가 되어 있고요.

○이연희 위원 언제 시작하셨느냐고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계약을 5월 달에 했고 지금 착공 준비 중입니다. 이제 변경을 했고, 9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경북 경주시 APEC준비지원단에서 4월 18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

한 자료를 보면 4월 달에 공사를 착수한다고 했는데……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5월 달에, 5월 28일 날……

○이연희 위원 5월 달에 착수를 하신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착수가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응급실 공간 확장뿐만 아니고 의료장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의료장비 예산을 아까 제가 여쭙았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얼마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17억 2000입니다.

○이연희 위원 17억 2000이에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당초의 26종에서……

○이연희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9억으로 돼 있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제출했을 때는 당초 단계고 진행하면서 공사 입찰하고 나서 잔액하고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장비 14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14억을 추가를 했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14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의료장비 예산이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17억 2000입니다. 시설비가……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응급의료 인프라에 필요한 주요 장비들은 다 구비가 되는 건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협의를 거쳤고 현장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관련되는 장비가 구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연희 위원 지금 제가 경북도에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9월에 의료 인프라를 완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출한, 보고를 할 때마다 나중에 보면 다 계획들이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6월 27일 날 개최도시 선정이 됐고 선정과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비 확보 전에 예비비를 통해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했고, 다만 기본 구상하고 설계 단계 중에 사정변경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했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 인프라라든가 장비가 되고 나면…… 통상 부산 사례를 놓고 보면 한 달 전에 완비가 되고 나면 리허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한 달 전에……

○이연희 위원 그거는 경북도 팀장님이 몰라서 하신 말씀이고, 각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를 결정했으면 와서 미리 사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왔는데 예를 들어서 만찬장이나 인프라 같은 것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응급의료 인프라 같은 경우가 준비가 안



때 있다 파악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정상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걸겠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거는 준비단에서……

○이연희 위원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위원님, 저희가 두 번의 실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월에 와서 전체적으로, 주한 대사관 위주가 되겠지만 본부에서 대표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사 1박 2일 정도로 해서 공항에서부터 회의장까지는 사전에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 2차 답사는 10월 초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9월 말까지 완성이 되면 전체 시나리오부터 해서 세부계획을 10월 초에 전 의전·경호팀이 실제 답사가 오면 설명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차질 없이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이성우 본부장님.

다들 아시겠지만 APEC은 특성상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상의에서 그 기간 중에 많은 국내외 경제인들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상공회의소 최태원 의장 명의로 글로벌 기업 1000여 곳에 1차 초대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혹시 참석 여부에 대한 답장이나 레터(letter)가 온 게 있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지금 현재 삼백사십두 분으로부터 오늘까지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0여개 업체는 포춘 500대 기업하고 그다음에 미래첨단산업 기업 해서 일단 1000군데, 국내 말고 해외만 1000군데 업체에 송부를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중에서 삼백사십두 군데에서 리스폰스(response)가 있었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중에 대부분의 주요국 기업들은 포함이 됐나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지금 빅테크, 미국 구글·메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 레벨에서 오느냐 안 오느냐는 한 9월 초 경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만희 위원 최고경영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CEO 레벨입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기업인들의 방문과 그 규모가 굉장히 이 회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경주 APEC의 경제효과가 전체 총 7조 4000억 정도에 이를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단기 직접효과가 3조 3000억, 중장기 간접효과가 4조 1000억 이렇게 했는데, 이 예상치는 어떤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당초 경북에서, 경북연

구원에서 경제적 가치 분석을 1.8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산출된 가치가 APEC에는 ABAC도 있고 CEO 서밋이라는 경제인 행사가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 지식파트너인 딜로이트컨설팅하고 한 3개월 동안 지난 10년치 APEC 행사를 분석하고 이번에 저희 연간 산업효과 등을 분석했을 때 한 7.4조 정도의 부가가치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보면 정상회의 전후로 해서 전국 20여 군데 산업 전시회와 연계된 북업코리아 행사 또 해외 투자기업들이 참석하고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이런 주요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김상철 단장님께 질문할게요.

경제 전시장 건립 중에 있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홍기원 위원 준공 예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중순까지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거기에 전시할 물품들이나 콘텐츠나 또는 참여하는 기업들 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참여 기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도 쇼케이스 형태로 대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것 같이 콜라보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 경북 지역뿐만 아니고 울산의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게 142억짜리 시설물이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게 항구적 시설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행사 끝나면 철거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기원 위원 활용할 계획이에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바로 옆에 원전 홍보관 들어서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원전 홍보관은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부지하고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지원·협조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강인선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홍기원 위원 한수원 원전 홍보관 알고 계세요, 내용을?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홍기원 위원 APEC정상회담 목적으로 원전 홍보관 짓는 거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하는 외교부차관님이 내용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184억입니다.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대한민국 경제…… 우리 기업들 홍보하는 전시관은 142억 들여서 하고, 아무리 한수원 자체 예산이라지만 저는 184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원전이라는 게 어떻게 해외에 수출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APEC 정상회담장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원전을 홍보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원전 홍보관은 한수원이 책임진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원전수소홍보관입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한수원이 원전이 핵심 사업이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홍기원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한수원이 지고 한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때 논의가 됐고……

○홍기원 위원 아니, 지금 경상북도도 모르고 총괄하는 외교부도 제대로 내용 파악도 안 돼 있고. APEC정상회담에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데,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마 경주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해서 그런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매우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인선 차관님, APEC정상회담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따 추가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 경주문화엑스포 세계 행사를 할 때요 국가 행사인데 경주가 주관이 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행사는 명암이 다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랬을 때 누가 그것을 보완해 주었느냐 하면 기업들이 경주문화엑스포 이스탄불에서 열릴 때 기업관을 만들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 경제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50억에 가까운 비용을 홍보비용으로 쓰는데 그 홍보비용은 사실 좋은 점을 강조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데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늦게 결정이 돼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국제 행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국격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또 이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아까 저도 풀어사이드 미팅도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잘 가서 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초청국들을 잘 초청했으면 싶은 생각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원전수소홍보관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많은 홍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말고의 우리나라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면, 중기부에서 누가 여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문상가도 그렇고 굉장히, 임대 중 내지는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확실하게 경주 근처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해 줘서 어쨌든 그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 되는 것하고 뭔가 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판 같은 것 이런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봐 줬으면 좋겠는데 중기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중기부, 나와 있습니까?

○2025APEC중소기업장관회의팀장 여현구 예.

○이인선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하면 소상공인 지원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비용 중의 대부분을 경주 쪽에 투입을 해서 경주 소상공인 내지는 보문상가 쪽 이런 쪽에 확실하게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2025APEC중소기업장관회의팀장 여현구 예.

○이인선 위원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기업들 더 독려해서 경주에 그런 홍보관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자부도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예.

○이인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예.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은 13일 날 경주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4월 18일 날 경주에 여기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

이 다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18일 날 경주 현장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하드웨어 인프라 문제는 그때도 지적이 됐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특히 행사 관련, 그 안에서 펼쳐지는 행사의 내용으로 이 내용이 결국은 뭔가 핵심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5월 1일 자로 제가 의원실에 문체부 업무보고를 신청해서 받으면서 여쭙본 게 이런 것들을 총괄 기획하는 예술감독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쭙봤더니 그때 공모를 올려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오늘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외교부에서 이미 예술감독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11일 날 ‘5월 2일 자로 위촉하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부처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제가 잘못 받은 건지, 왜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되는가?

또 지금 문체부 13개, 경주시 17개가 공식 행사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예술감독에 대한 선임 절차 및 공모방식, 제청방식, 기간, 선정 기준…… 여기는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그냥 위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날짜가 제가 요청한 날짜랑 맞지가 않고,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보고가 누락됐느냐?

또 13개, 17개 이렇게 많은 공식 행사들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기획단에서 준비하신 것만 봐도 만찬 문화공연 하겠다, 번영의 스토리 전달, 한국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제공,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예술감독의 어떠한 기획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게 기획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별 행사기획안 초안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체부 13개, 경주시 17개입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사 예산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현재 집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행사와 관련된 각 프로젝트별로 기획안 초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드릴 때 문체부 쪽에는 조선시대의 저잣거리, 제가 이번에 김포시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갔다 와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간 차원에서, 여기가 비영리이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현 정부 측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문화예술감독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체부에 관련 절차를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문화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감독을 5월 초까지는 위촉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과거의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국민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으나 절차를 좀 당기기 위해서 문체부에 저희가 후보군을 부탁드렸고 그 후보군 중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 과정과 구체적

인 사항은 별도로 관련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행사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저희가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PCO가 있고 그 PCO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문화예술감독이 전체적인 결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6월 말까지 계획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위촉을 한 상황이었습니 다. 구체적인 보고를 국회에 못 드린 상황은 저희가 아마 누락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일정에 맞추려고 사람을 함부로 뽑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정웅 감독은 평창올림픽 때 행사도 있고……

○**김재원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추천을 해 주셨고요. 그 기준하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PCO하고 같이해서 구체적인 문화행사 계획을 6월 말까지 작성해서 저희 기획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시간이 꽤 많이 경과되어서 다음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한 여섯일곱 군데 대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답변은 간단히 하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 문제가 경주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엄정희 국토부 실장님, 국토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코레일이 나 공항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하고 협조 잘 하시고요. 상세한 건 자료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숙소 문제하고 만찬장, PRS 등 이게 걱정이 됩니다. 김상철 단장님 담당이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 다시 현장에 가서도 점검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더 당길 수 있는, 완료시킬 수 있는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외교부 윤성미 의장님, 김지준 실장님, 초청하고 참석 그것 대비를 잘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서야 PRS고 뭐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 노력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개별적으로라도.

경제인 행사 굉장히 중요한데 APEC정상회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중요성에

비해서 보고서 양이라든지 내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이성우 본부장님과 산업부의 오충중 국장님, 오 국장님 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중 예.

○정일영 위원 이것 더 노력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인 행사에 어느 경제인이…… 세계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CEO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홍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병채 실장님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이성우 본부장님, 민간 차원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보고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걱정이……

천년고도로서의 경주는 아주 세계 최고의 도시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첨단 IT, AI, K-컬처 특히 요즘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인기가 좋은 AI 가상아이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K-컬처, 우리나라의 첨단 AI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병채 실장님, 이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원전은 저도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부의 국장님인가 실장님 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중 예.

○정일영 위원 산업부하고 외교부에서 같이 재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중 예.

○정일영 위원 하여튼 너무나 중요한 행사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 차원에서, 여당 차원에서도 예비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재부의 윤정인 부장님 오셨습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협력사업부장 윤정인 예.

○정일영 위원 예산실 소관이라 연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위에서 얘기를 한다고 예비비도 정부에서 필요시에는 쓰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우리 여당 차원에서는 지원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윤성미 의장님, 준비기획단에서 준 보고자료 10쪽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 마련 플로(flow)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도 포함된 겁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그 질문은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게 정상도 포함됐습니까?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포함된 계획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가서 외국에서 어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 보면 중증인 경우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필요할 때는 헬기로 부산대를 가든 구급차로 가든 인근 도시 간다.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급 의료진이 있는 데 거기서 바로 갈 것 같거든요, 응급조치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했었어요. 그랬을 경우 여기 지금 서울대하고 세브란스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그쪽에 수술실이 다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룸(operation room)이 있는데 수술실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정상이 갈 병실이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 이 체계는 정상을 왜……

나머지 VIP들에 대해서는 이게 일용 타당하다고 저는 보지만 정상인 경우는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중국은 자체 의료진도 오겠지만 그 의료진이 갖고 있는 의료체계 갖고 안 되는 수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병실을 확보하고 의료기기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의료진이 문제입니다. 그쪽들도 우리 의료시설에서 어디가 가장 퀄리티 높은 병원인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상철 단장님, 여러 위원님이 또 PRS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듣고 이렇게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각국 정상들은 기호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PRS를 해서 숙소를 마련할 때 사전에 참석하는 정상이 정해지면 거기 기호에 맞는 인테리어나 색상이나 디자인 같은 게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협력이 되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또 인력 문제입니다. 호텔 서비스가, 물론 경주도 특급호텔이 있어요. 경주에 있는 특급호텔 종사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의 특급호텔 종사자들의 역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테리어, 가구, 집기, 인력을 임차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차 지원하는 호텔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특급호텔에 프레지던트 룸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가구를 뺀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호텔의 영업이 안 되거든요. 정상을 서빙했던 분들이 오면, 그쪽에 VIP가 왔을 때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가지고 디테일을 만들어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불식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찬장, 여러 공사 현장 갖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단장님으로서 또 해명하실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은 양해를 구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이 협력하고 이런 부분을 외교부하고 또 잘 협의해서 숙박 PRS가 선정된 만큼 준비 상황들을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십여 차례, 특위에서도 4월 달에 한 번 와 주셨고 대통령실·경호실 실무급부터 장관님들까지 오십한 차례 현장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준비위원회에서 현장실사 결과를 통해서 장소하고 내용은 확정이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축·건설 관련해서는 그만큼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에서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했고 감리하고 현장 감독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를 당기고 있고 그리고 통상 APEC이라든가 다른 국제행사 기준에 준해서 한 달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당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산자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산자부?

이쪽으로 나오세요.

APEC을 하면 기업을 주체로 하는 전시관을 운영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예.

○윤후덕 위원 2005년도 부산APEC에서 보니까 한 60여 개 정도 기업이 전시관을, 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지금 대한상의하고 경제인 행사로 여러 세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시는 전시관 형태는 아니지만 전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기업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참여하는지 이런 걸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그 부분은 대한상의 쪽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산자부는 대한상의한테 맡겨 버리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아니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요, 보고에서? 그러면 삼성은 안 들어온대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아니, 삼성이나 SK나 현대차나 이런 데 다 참

여는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게 진행된 상태, 그런 상황을 보고해 줘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직도 협의한다는 얘기에요?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정된 내용들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또 언제 다른 보고를 해요?

대한상에서 오신 분이 답변 좀 해 줘요, 대한상.

기업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시켰어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당초 기업전시관을 저희 대한상에서는 APEC CEO 서밋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별도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주에서 APEC 경제전시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전시장 내에 첨단 분야 5개 분야로 해서……

○**윤후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어느 회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참여한다라는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상에서도 그룹 기업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일단 15대 그룹의 저희 민간지주회사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건 참 협조…… 문서로만 협조를 한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경주·창원·울산·포항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또 이 전시관에 어떻게 전시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저희가 맡은 부분은 대기업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중소기업은 경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제일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이거네요. 기업의 전시관을 지금 어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척시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할 내용이 없네요? 큰일났네요, 이걸.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예.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이 기업전시관 관련해서 716평 규모로 하고 있고 AI, 반도체, 방산, 문화까지 해서 5개 분야를 이렇게 합니다. 다만 전국으로 넓히기는 그렇고 조선후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울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이성우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삼성·LG·SK·포스코하고 해서, 저희들은 실내에 작은 규모로 들어오고 엑스포공원 17만 평 내에, 전시장 옆에 별도 공간을 저희들이 파빌리온 제공하고 안에는 선정된 대기업들이 채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경주·창원·포항 이런 지역의 주요한 기업들도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 100여 개 기업의 부스도 마련하고 저희들이 쇼케이스 형태로 지역의 첨단산업,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현재·미래 그다음에 문화체험관하고 일대일 기업 미팅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밖의 공간에는 대기업의 쇼케이스 형태의 전시관을 한 5개 정도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건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대한상회에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대한상공회의소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김상철 단장님, 자세하게 상황을 잘 보고해 주시고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충질의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홍기원 위원님……

○**윤후덕 위원** 저도 딱 하나만.

○**위원장 김기현** 방금 다 하셨는데……

○**윤후덕 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한마디 더 해야지요.

○**위원장 김기현**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윤후덕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아마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리스트를 가지고서요.

그러시면 되겠고, 홍기원 위원님 질의시간 3분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대충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홍기원 위원** 전시장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 한수원의 원전 홍보관,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그걸 책임지고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 부분은 한수원 협조 요청에 따라서……

○**홍기원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담당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수원에 맡겨 둔 거지. 저는 그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강인선 차관님, 차관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걸 보면 당연히 대통령께, 또는 대통령실에 이 내용이 자세히 보고 안 된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이런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홍기원 위원** 잘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우리 경제전시관이 142억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개 회사, 그것도 원전에 관한 홍보관이 184억 들어간다는 건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외국의 손님들이 와서 봤는데 한국 기업……

여기 보면 산업역사관, 미래산업관, 기업관 이런 걸로 집어넣는 게 142억, 면적 아까 700평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한수원의 원전수소홍보관이 700평 좀 더 되던데 그걸 184억 들여서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기획단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이 내용 챙기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정상회담 행사의 일부로 집어넣습니까? 아까 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외교부에서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하고 새로 지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수원 홍보관, 전시관이 20% 공사가 진척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축소 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산업부에서 오신 분도 이것 내용 모르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어느 나라 정상이 갈지 기업 CEO가 갈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원전은 사업의 성격상 이런 식으로 홍보할 내용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민국 경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142억 들여서 전시장을 만들고 원전에 대해서는 184억 들여서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에서 오신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사업 예산, 문화동행축제 예산으로 82억 요청했는데 20억만 반영됐고 또 문화장관 회의, 고위급 대화 예산 10억 증액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만약에 다음 달에라도 추경이 편성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추경에서 문체부 20억 그다음에 경북도 20억 해서 4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기원 위원 제 질문은 7월쯤 추경에 그게 추가로 반영이 된다 했을 때 시간상 그런 새로운 문화사업을,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게 가능하겠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저희는 기존 추경에 반영된 걸 바탕으로 해서 행사를 잘 꾸려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필요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위원장 김기현 보충질의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후덕 위원님도 그러면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하고 마무리하지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APEC 원전수소홍보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 20% 정도 됐는데 재검토하라 하시는데요. 경주에는 제2원자력연구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SMR 산업특구가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한 원전이 아니고 뒤에 보면 다섯 번째에 수소산업 5개의 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수원은 RE100이라고 해서 그 회사 자체의 RE100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30%, 약 한 10조 가까운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원전·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관광의 도시라는 경주에서 메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중에 울산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 경주이고 두 번째, 이 원전 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방폐장까지 전부 다, 폐기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주 시민들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 부지하고 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놔둬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APEC 행사가 끝나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AI·데이터·반도체, 전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SMR,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해야 되는 이 마당에 이런 홍보관을 해서 우리의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밝히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고 또 이미 착공해서 20% 가까이 전시장이 됐다 하니까 그대로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단에서 이걸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간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마치셨나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오늘 소프트한 얘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하면 뜨는 종목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푸드예요, 음식. 그래서 이번에 김밥이 뜨는지 비빔밥이 뜨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관심이 있는 게 만찬 할 때 술을 선정하잖아요. 20년 전 2005년에 ‘천년약속’이라는 술을 썼지요. 그리고 복분자하고 떴어요, 그때. 이번에는 어떤 술로 정할지 언제쯤 결정할 거예요? 그건 또 뭐 나중에 할 거지요? 지금은 아니지요?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저희가 전체 계획을 모아서 행사 한 이삼 개월 전부터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경주에 또 좋은 술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의전차량이 떠오. 20년 전에 에쿠스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게 대박이 났어요, 실제. 그래서 허성무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 질의를 했을 때 싸구려 자동차가 아니라 고급 자동차로 전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진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예, 그러시지요.

○김재원 위원 저는 질의 아직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현 아까 다 마치신 것 아닌가?

○이병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현 예, 자료제출 요구.

○이병진 위원 윤성미 의장님, PRS를 위한 TF를 5월 27일 날 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지요? PRS를 위한 TF가 구성됐다, 5월 27일 날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번 주까지 우리 의원실에 보고 내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예,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경북도에서 그것 제출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추가질의를 더 하실 분이 있으면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합시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 하시면 추가질의 더 없는 것 확인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분간 질의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문화 부분 예산에 관해서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인데 윤양수 실장님, 국회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맡으셨다고 오늘 저한테 명함을 새로 주시면서 예산 더 필요할 것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진행되어야 되는 프로젝트, 새로 추가되어야 되는 프로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철 단장님, 전시관에 문화 포함이라고요? 기업 포함입니까? 기업이 오겠지요, 당연히?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런 진출 기회에 민간이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부처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 공동성명서는 단순히 외교적 선언을 넘어서 회원국 간의 합의된 가치와 비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서 담아내고자 하는 철학과 기조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의 제시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차관님 그리고 고위관리회의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APEC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공동성명서 초안 현재 작성 중입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동성명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참가국들과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문체위 위원이니까 이 부분 강조드리자면 문화 부분인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경쟁력입니다’를 포함해서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하셨던 그런 경제를 위한 기조가 포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율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내용이 각국과의 조율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국제협력 체계 속에서 문체부와 산자부에서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가 아직 제도적으로 독립된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APEC은 경제협력 중심의 각료회의체인데 비전통적 경제 이슈들이 점차 핵심 의제로 부각이 되고 있지요. 제가 APEC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문화와 경제를 연계하는 전담 플랫폼이나 워킹그룹 자체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APEC 그룹 내에서 문화경제교류그룹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타진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제가 알기로 이제까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APEC에서 문화를 다룬 체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가 문화 관련 고위급 대화,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계획 구상 중의 한 일부가 이런 회의체를 계속 연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화경제가 이제는 글로벌의 큰 핵심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향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김상철 단장님, 김상철 단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원전수소홍보관이라고 그러셨나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은 당초에 체코 원전 24조 수주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원전 산업이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지역민 여망을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 원전 26기 중에 13기가 경북 동해안에 있고 경주에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방폐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한수원 자체에서 이번 APEC뿐만 아니고 엑스포가 17만 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세일즈하는 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지방 차원에서는 장소 협조이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지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 APEC 회의 기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시설물이다 이런 뜻인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시설을 남겨서 저희들 지역 경제·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그리고 임미애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는 양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대로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2차관님을 비롯한 APEC 준비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기현 김재원 김태선 김형동 유영하 윤후덕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경태 정일영 조인철 조정훈 허성무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2차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부단장) 강인선

2025APEC고위관리회의

의장 윤성미

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기획실장 김지준

기획총괄부장 임경훈

협력사업부장 윤정인

의전기획관 권재환

기획재정담당관 김종민

국제경제국심의관 이지윤

경상북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경주시

부시장 송호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중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대한상공회의소  
APECCEOSummit추진단추진본부장 이성우